

Anti-HCV 항체 양성인 사람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중복감염이  
간세포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원자력병원 내과

홍현주\*, 정숙향, 한철주, 김유철, 김창민, 이진오

목적: C형간염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간세포암 발생에 있어 B형간염바이러스와 중복감염의 병인론적 역할 및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Anti-HCV 항체 양성인, 간세포암 환자군(58명)과 간세포암이 없는 환자군(79명)간에 임상적 특징 및 HBsAg 양성률, Kaneko 등의 방법에 따른 nested PCR에 의한 HBV-DNA 양성률 및 RT-nested PCR에 의한 HCV-RNA 양성률을 비교하여 단변량 및 다변량분석을 하였다.

결과: 1) 다변량분석 결과 간세포암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인자들은 남자, HCV-RNA 양성, HBsAg 양성 및 HBV-DNA 양성이었다.

2) Anti-HCV 항체 양성 간세포암 환자중에서 HBsAg 양성인 환자에서의 평균 나이는 음성인 환자보다 적었다.

3) Anti-HCV 항체 양성이고 HBsAg 양성인 환자 13명중에서 HBV-DNA 양성/HCV-RNA 양성인 4명(31%), HBV-DNA 양성/HCV-RNA 음성이 6명(46%), HBV-DNA 음성/HCV-RNA 양성인 2명(15%), HBV-DNA 음성/HCV-RNA 음성이 1명(8%)이었다.

결론: Anti-HCV 항체 양성인 환자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동시감염시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동시감염이 있는 환자의 2/3에서는 상호배제적인 바이러스 증식의 양상을 보이고 1/3에서는 동시증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만성 B형 간염에서 Lamivudine의 유지요법

포천중문의대 내과학교실

홍성표\*, 권창일, 오재인, 김정철, 김배영, 황성균, 박필원, 임규성

배경 및 목적: nucleoside analogue로서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인 lamivudine은 HIV 환자뿐 아니라 만성 B형 간염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약물을 중단하면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함으로써 재발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약물을 복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일정 기간동안 약물을 복용하면 매일 투여되는 용량에 관계없이 DNA polymerase의 YMDD 아미노산 motif에 돌연변이가 생겨 그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부작용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매일 수년씩 복용할 수 없다. 연자 등은 lamivudine의 복용 간격을 점차 벌려서 유지하는 방법을 시도하여 보았다.

대상 및 방법: 간 조직생검을 실시하여 만성활동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되고, interferon을 투여하여 비반응군으로 분류되었거나 재발되었던 환자 9예(남자 7예, 여자 2예; 나이 17-48세)를 대상으로 lamivudine을 150mg qd 혹은 bid로 시작해서 1개월 간격으로 간기능 검사와 HBeAg/Ab, HBV-DNA 등을 검사하여 HBV-DNA가 음전되고 간기능 검사가 정상화된 lamivudine 투여 간격을 qd, qod, q3d, q5d, q7d, q10d 로 1단계씩 벌리면서 간기능 검사를 정상으로 유지하였다.

결과: 1) 9예의 lamivudine 투여 기간은 4개월부터 13개월로 평균 9.3개월이었다.

2) ALT치는 9예 모두에서 정상화되었고, HBV-DNA는 9예 모두에서 음성으로 반전되었으나 1예에서는 치료간격을 벌리면서 HBV-DNA가 다시 나타났다. HBeAg은 치료 시작시 1예에서는 음성으로, 8예에서만 양성이었다 그 중 3예(37.5%)가 음성으로 반전되었다.

3) 현재 lamivudine 투여 간격은 q10d로 투여중인 예가 1예, q7d가 4예, q3d가 3예, qod가 1예이다.

4) lamivudine의 평균 투여 일수는 284일의 투여 기간중 약 60%인 170일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lamivudine은 HBV-DNA의 증식을 억제하고 ALT를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투여간격을 늘려도 그 효과가 유지되므로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요법을 사용하면 소량의 약물로도 장기간의 유지요법이 가능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시간이 경과될수록 투약일의 비율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